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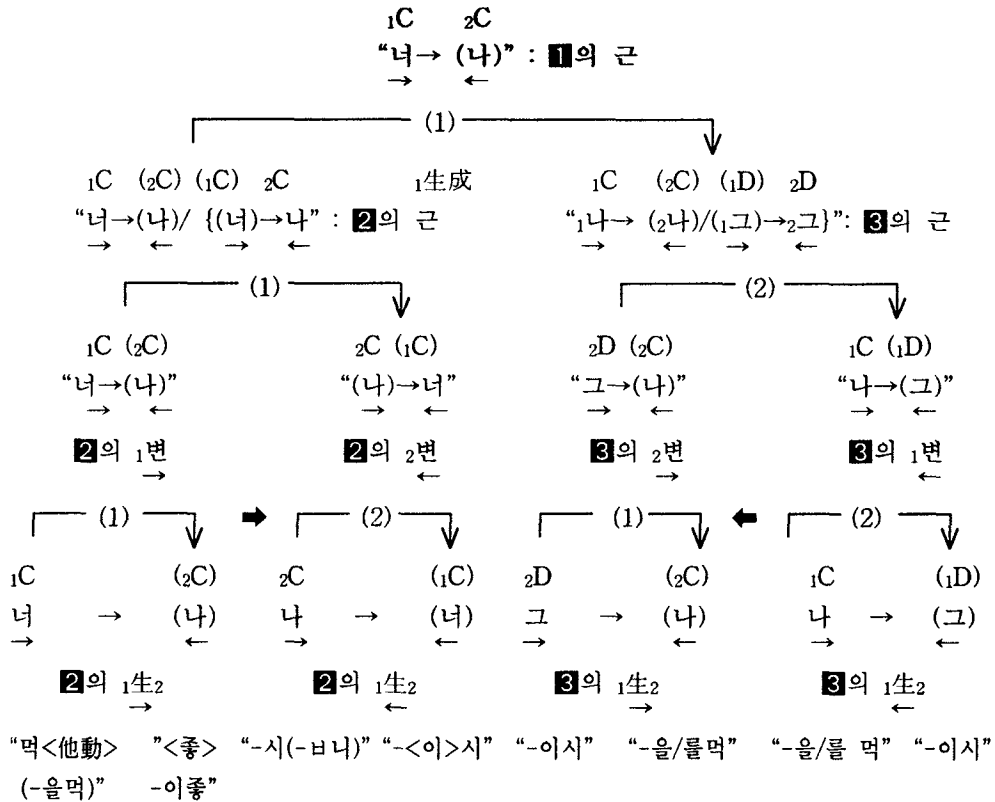
複合적 外部통사론(I)단계의 指示(屈-/動-/代-)적 人稱의 조직 (1) :

*주의 : 아래 표기 1生2에서 “너” → -을, 를 먹 ; “나” → -이시 ; “그” → -먹들 로 읽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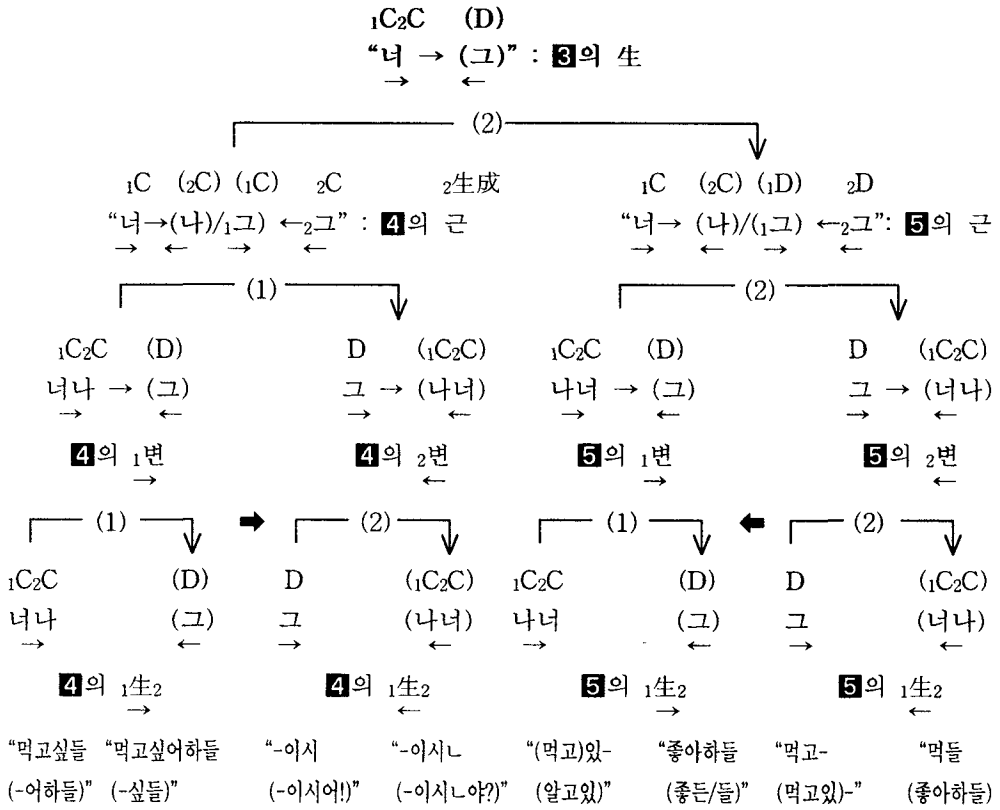
*주의 : *앞(pp. 40~41) “指示(=거부/同形化) → 被指示(=피거부/被同形化)”적 人稱의 기본조직 (1)과 같음(이하 모두에 해당됨).

複合적 外部통사론(I)단계의 指示(屈-/動-/代-)적 人稱의 조직 (2) :

<屈인칭>



<動인칭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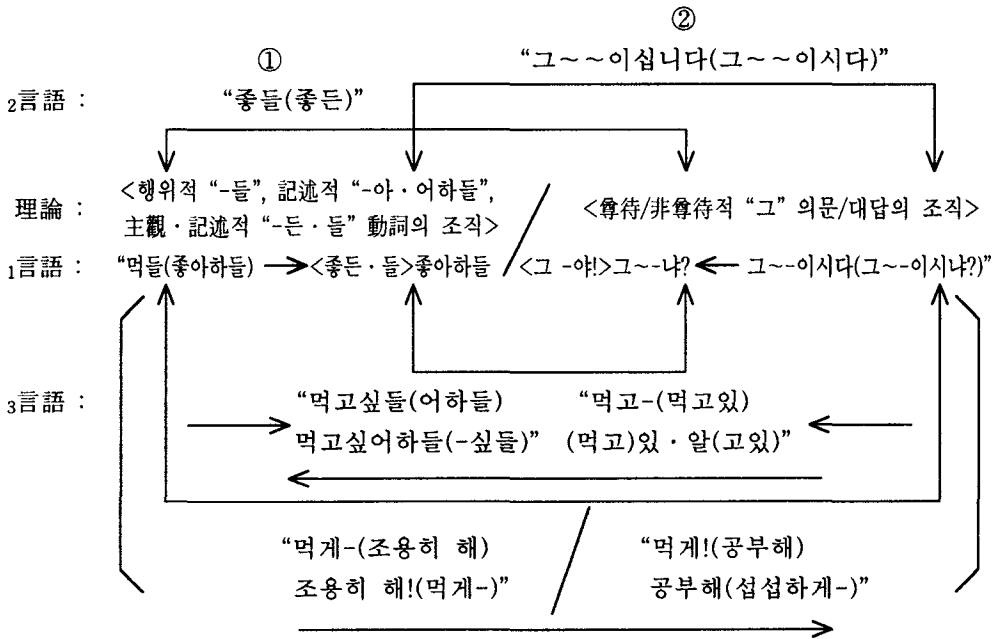
單一적 外部통사론(Ⅱ)단계의 橫對角線적 言語표기 :

*앞 “複合적 外部통사론(Ⅰ)단계”의 ↑[]안의 生成단계의 []를 벗기고, 그 순서를

그와 逆方向의 ↓^근변으로 바꾼, *뒤 “複合적 外部통사론(Ⅱ)단계”의 직전단계.
↓[生]

*주의 : *앞 단계의 []안의 生成단계의 “生成”(↖↗의 左/右의 “→ ←”단계)은 각각 *아래 그림의 “理論” 및 “₁言語”단계로 바뀌고, “근원/변형”(맨 밑의 “↔”단계)은 각각 “/”右측의 “-이시-”는 “-게” 動詞로, 左측의 “-고~들”은 “-고/-고~들” 動詞로 바뀐다.

그 이유는 *아래 그림의 “理論”단계에서 “/”의 左측은 “행위→記述→主觀”의 조직이고 그 右측은 “그” 의문/대답의 조직이라는데 있다(그리고 이 左/右의 조직의 작은 *앞단계의 “理論”의 具體化이다).



*주의 : *위 그림의 “2言語”단계의 숫자표시 “①/②”는 “左 : 尊待이전단계=먼저 / 右 : 尊待단계=나중”의 순서 표시임.

*주의 : *뒤 : “**1** → **5**”식 人稱표기 참조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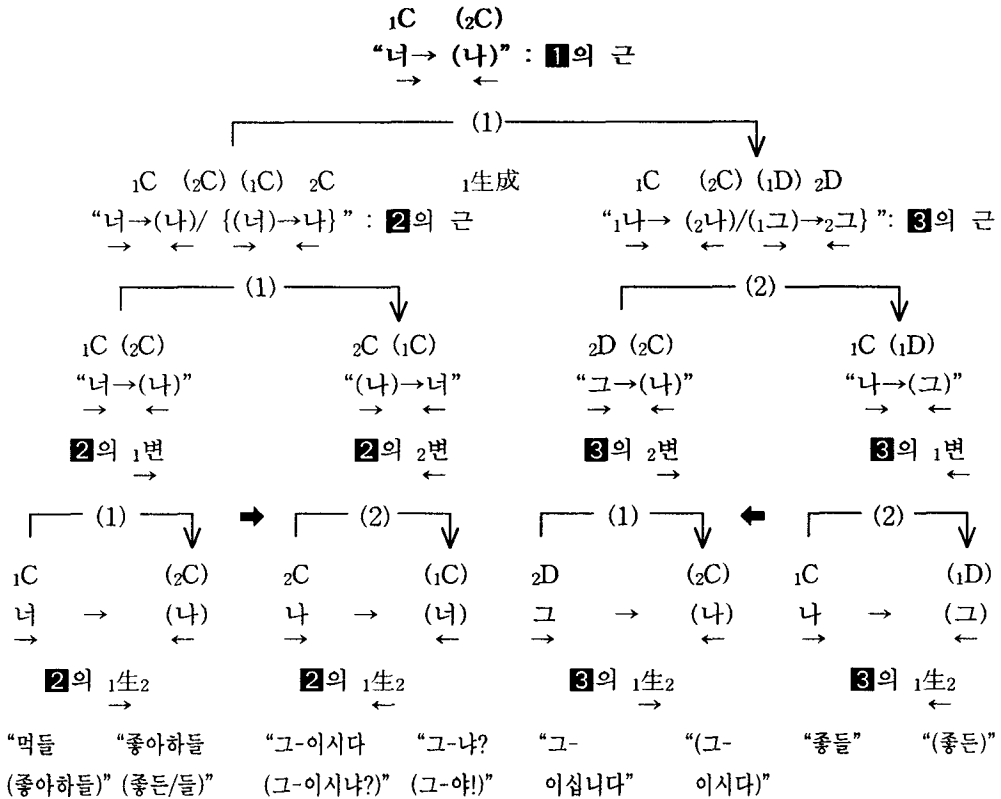
單一적 外部통사론(Ⅱ)단계의 指示(屈-/動-/代-)적 人稱의 조직 (1) :

*주의 : 아래 표기 1生2에서 “너” → 좋들 ; “나” → 좋든 ; “그” → 그-이십니다 (그-이시다)로 읽음.

*주의 : *앞(pp. 40~41) “指示(=거부/同形化) → 被指示(=피거부/被同形化)”적 人稱의 기본조직 (1)과 같음(이하 모두에 해당됨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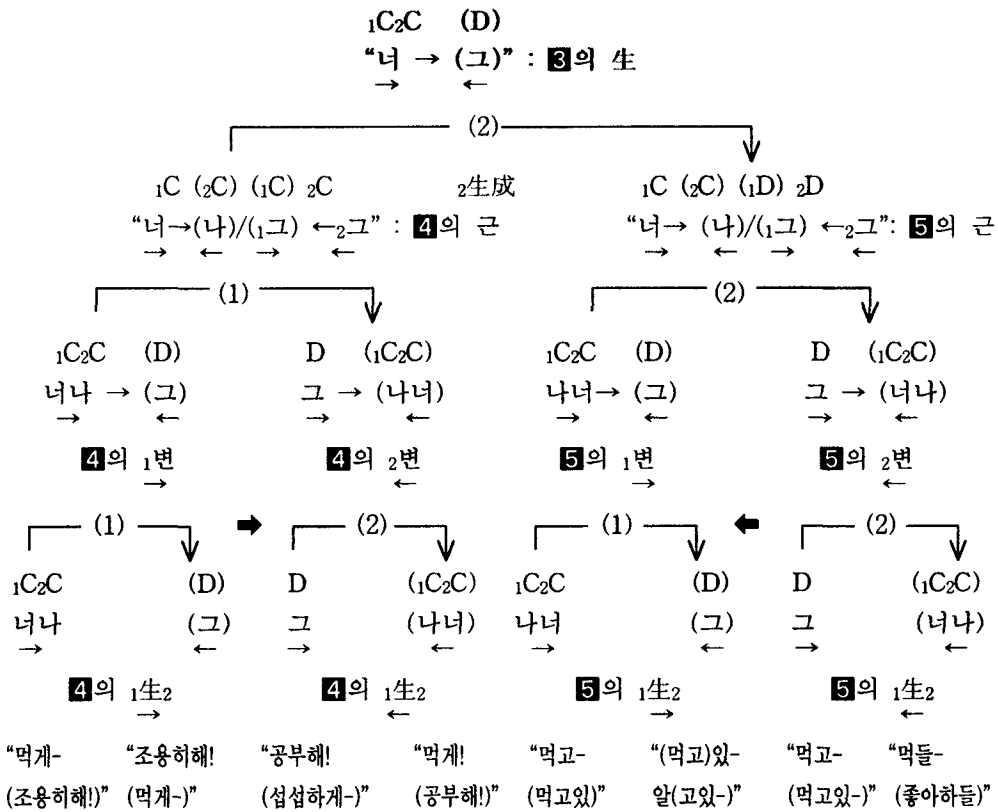
單一적 外部통사론(Ⅱ)단계의 指示(屈-/動-/代-)적 人稱의 조직 (2) :

<屈인칭>



cf. <理論言語學...> p. 480이하.

〈動인칭〉



複合적 外部통사론(Ⅱ)단계의 橫對角線적 言語표기 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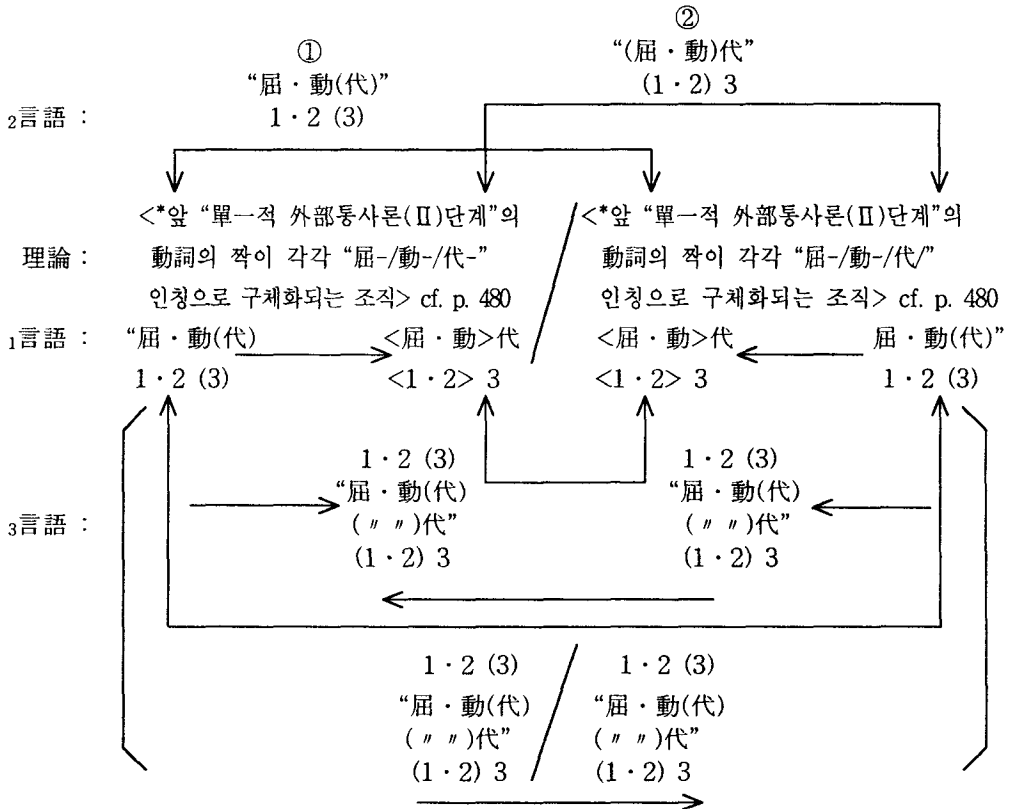
*앞 “單一적 外部통사론(Ⅱ)단계”의 각 項目을 屈=1/動=2/代=3人稱化 시킨, *뒤 “單一적 外部통사론(Ⅲ)단계”의 직전단계.

*주의 : “理論言語學…” p. 480 및 그 이하 참조.

“屈 動 代”

“1 /2 /3”의 숫자표시는 나무그림의 마디를 가리킴.

“言語”단계의 “①/②”숫자표시는 “左=존대이전=먼저/右=존대=나중”의 순서표시임(*이하 모두에 해당됨).



*주의 : *뒤 : “1 → 5”식 人稱표기 참조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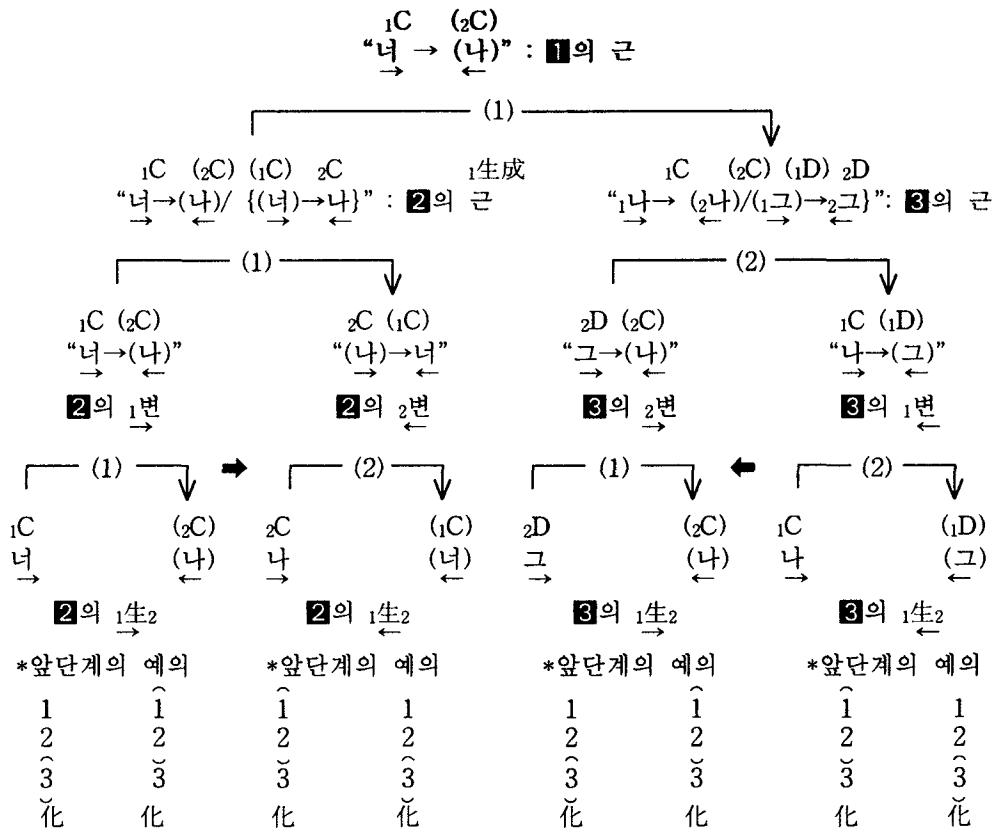
複合적 外部통사론(Ⅱ)단계의 指示(屈-/動-/代-)적 人稱의 조직 (1) :

- *주의 : 아래 표기 1生2에서 “너” → 屈·動(代) ; “나” → (屈·動)代 ; “그” → 屈·動(代) 로 읽음.
- *주의 : 이 단계는 “근원/변형”단계와 “1生成/2生成”단계가, 그 구체성 때문에 구분되지 않고 “≠”적으로 合致되어 있음에 주의.
- *주의 : *앞(pp. 40~41) “指示(=거부/同形化) → 被指示(=피거부/被同形化)”적 人稱의 기본조직 (1)과 같음(이하 모두에 해당됨).

複合적 外部통사론(Ⅱ)단계의 指示(屈-/動-/代-)적 人稱의 조직 (2) :

*주의 : 앞 “(單一的)外部통사론(Ⅱ)단계” 참조

<屈인칭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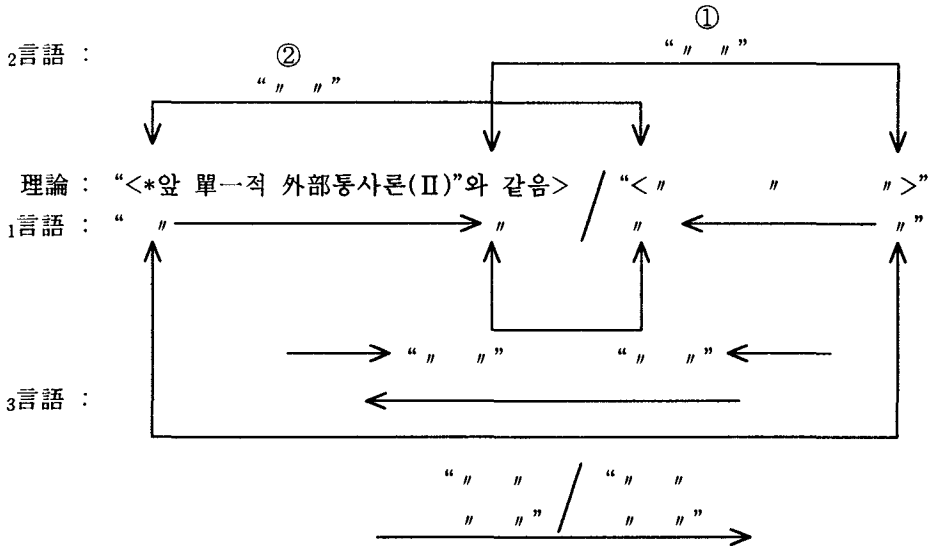


cf. <理論言語學...> p. 480 이하.

單一적 外部통사론(Ⅲ) 단계의 橫對角線적 言語표기 :

*앞 “單一적 外部통사론(Ⅱ)단계”와 그 外形이 같으나 그 同形의 順序가 “右=존대= 먼저①/左=존대이전=나중②”로 바뀐, *뒤 “複合적 外部통사론(Ⅲ) 단계”의 직전 단계.

*주의 : *앞 : 單一적/複合적 外部통사론(Ⅱ)단계와 같은 *주의.



*주의 : *뒤 : “**1** → **5**”식 人稱표기 참조.

單一的 外部통사론(Ⅲ) 단계의 指示(屈-/動-/代-)적 人稱의 조직 (1) 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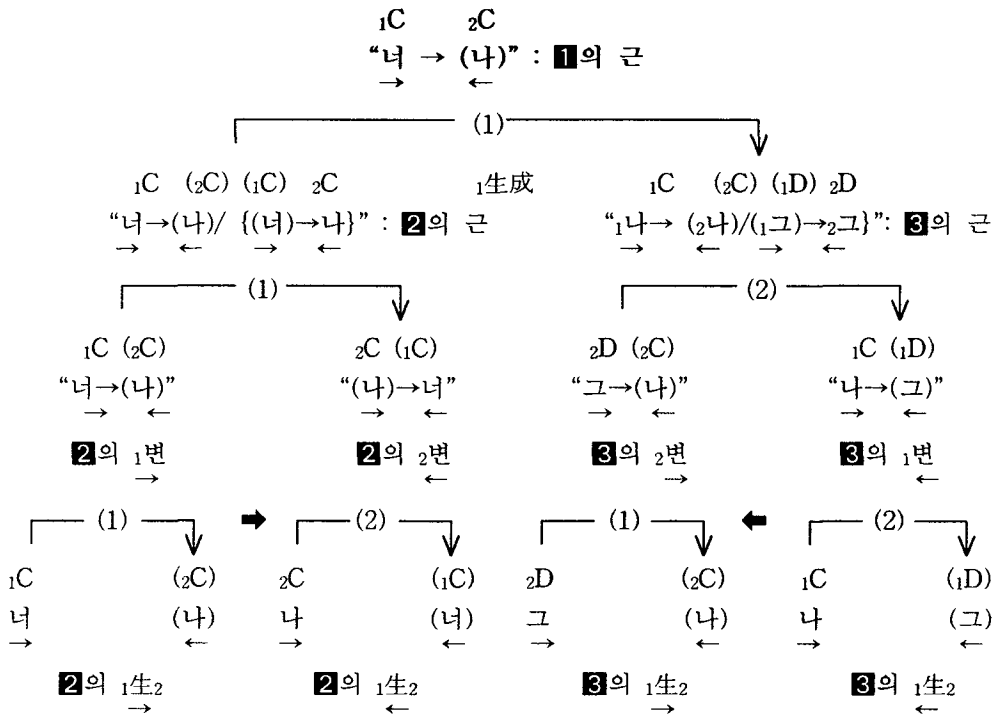
*주의 : *앞 “單一的外部통사론(Ⅱ)단계”와 같은 주의 ; 단, 그 同形의 順序가 그와 逆方向(←)임에 주의.

*주의 : *앞(pp. 40~41) “指示(=거부/同形化) → 被指示(=피거부/被同形化)”적 人稱의 기본조직 (1)과 같음(이하 모두에 해당됨).

單一的 外部통사론(III)단계의 指示(屈-/動-/代-)적 人稱의 조직 (2) 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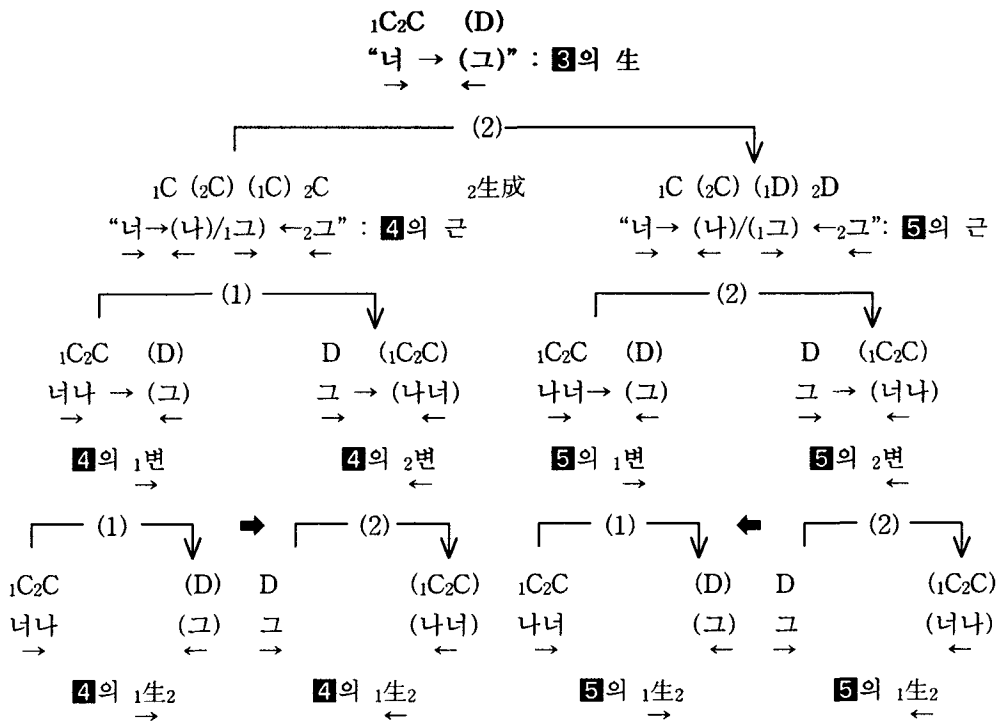
*주의 : 앞 (單一的)外部통사론(II)단계와 같은 주의 ; 단, 그 同形의 順序가 그와 逆方向(←)=구체적임에 주의.

〈屈인칭〉



*앞 “單一的 外部통사론(II)단계”와 같은 예임.

〈動인칭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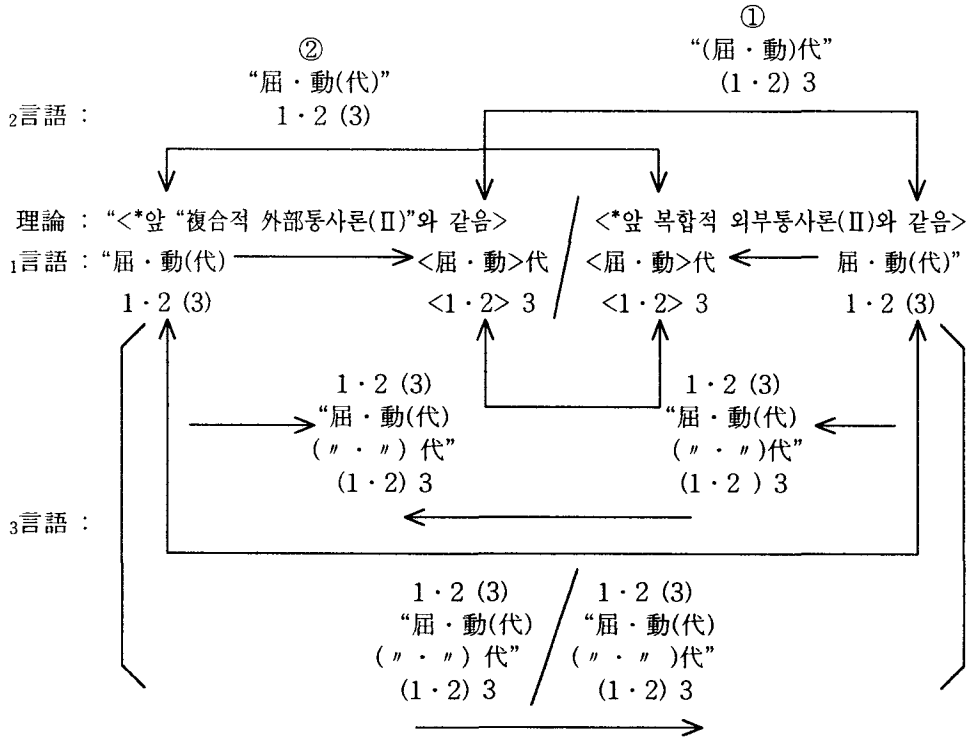


*앞 “單一的 外部통사론(II)단계”와 같은 예임.

複合적 外部통사론(Ⅲ) 단계의 橫對角線적 言語표기 :

*앞 “複合적 外部통사론(Ⅱ)” 단계와 그 外形이 같으나 그 同形의 順序가 “右=존대=먼저①/左=존대이전=나중②”로 바뀐, ‘言語活動의 거부적 조직’의 마지막 단계.

*주의 : *앞 “複合적 外部통사론(Ⅱ)단계”와 같은 *주의.



*주의 : *뒤 : “**1** → **5**”식 人稱표기 참조.

複合的 外部통사론(Ⅲ) 단계의 指示(屈-動-/代-)적 人稱의 조직 (1) :

*주의 : *앞 “複合的 外部통사론(Ⅱ)단계”의 人稱표기(1)에서와 같은 주의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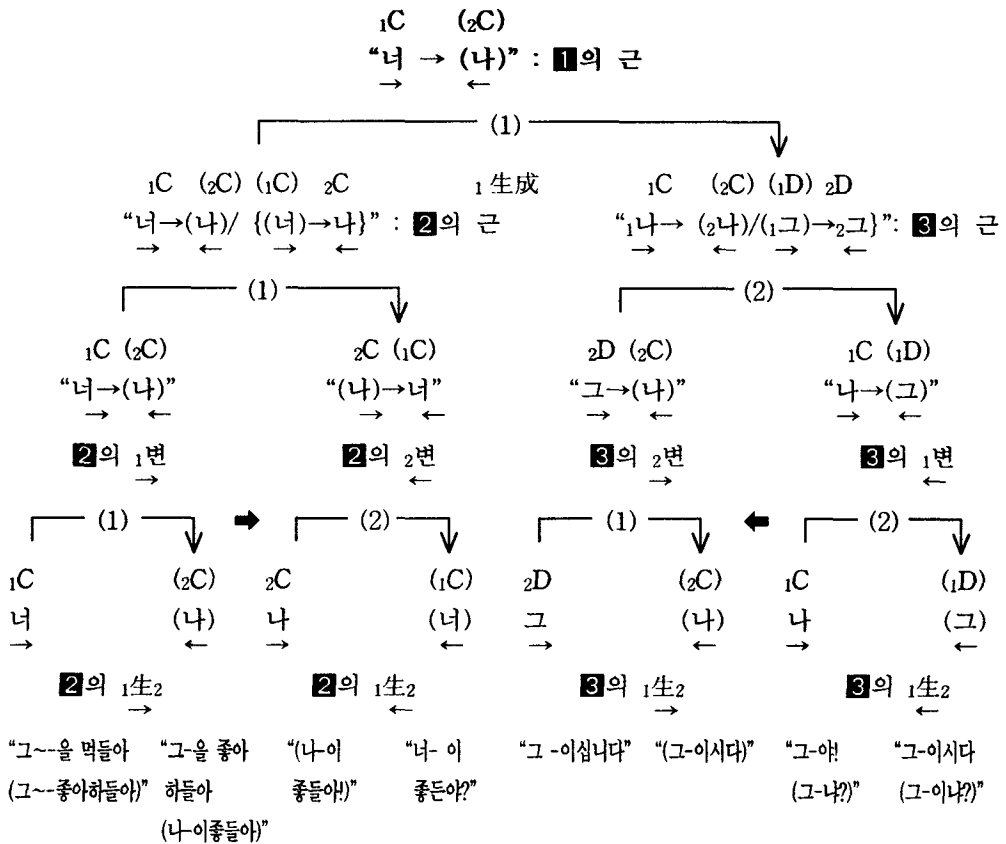
*주의 : 아래 표기 “근원” 단계의 左의 첫째/둘째 1生2에서 “너” → 너, “나” → 저로 읽고, 右의 첫째/둘째 1生2에서는 “나” → ∅, “그” → 너 로 읽음.

*주의 : *앞(pp. 40~41) “指示(=거부/同形化) → 被指示(=피거부/被同形化)”적 人稱의 기본조직 (1)과 같음(이하 모두에 해당됨).

*주의 : 아래 표기 “변형” 단계의 左의 첫째/둘째 1生2에서 “너나” → 나, “그” → 님 으로 읽고, 右의 첫째/둘째 1生2에서는 “너나” → ∅, “그” → -시 로 읽음.

複合의 外部통사론(Ⅲ)단계의 指示(屈-/動-/代-)적 人稱의 조직 (2) 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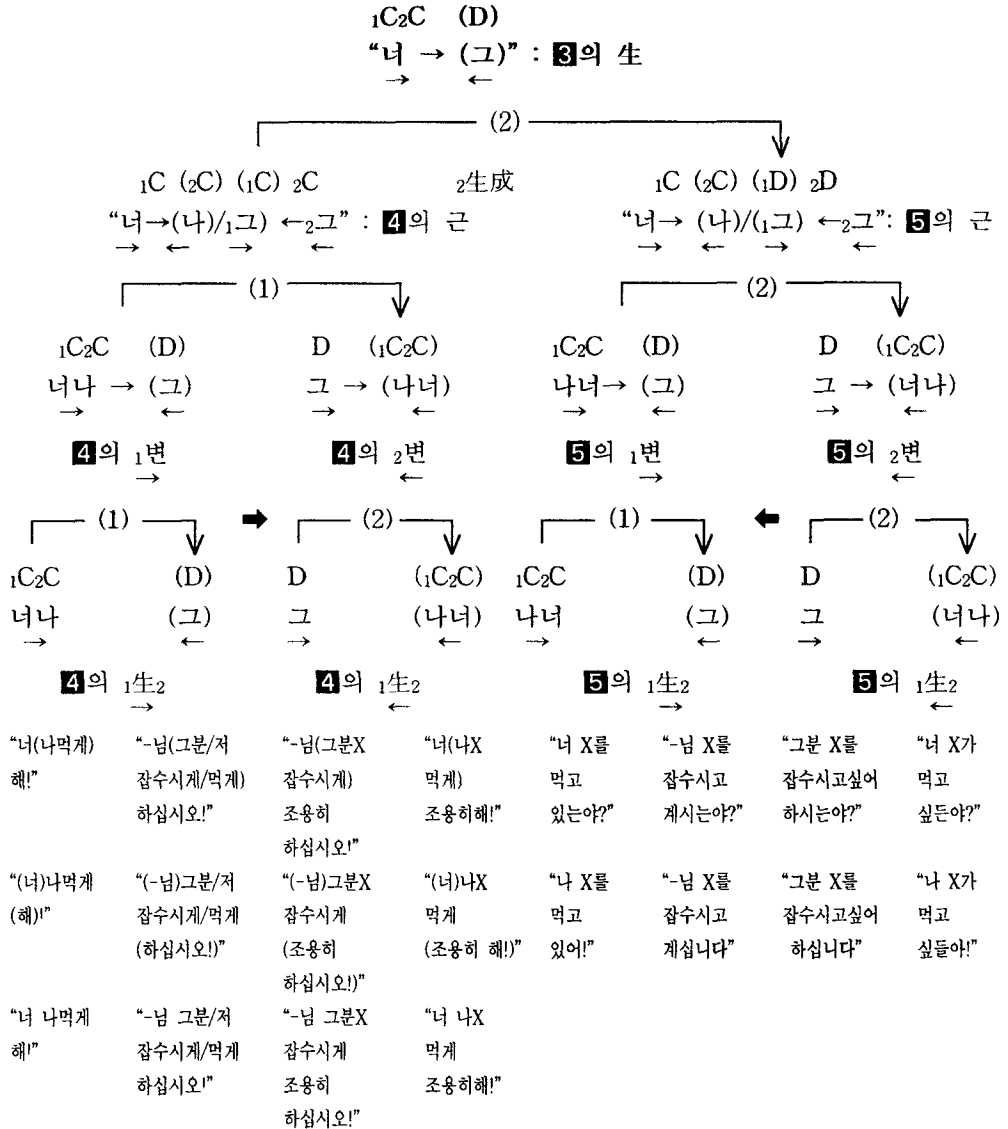
〈屈인칭〉



cf. <理論言語學.....> p. 480 이하.

*주의 : *앞 “複合의 外部통사론(Ⅱ)단계의 人稱표기(2)”에서와 같은 *주의 ; 단 그 ‘同形의 順序’가 그와 逆方向化 = 具體化되었음에 *주의.

<動인칭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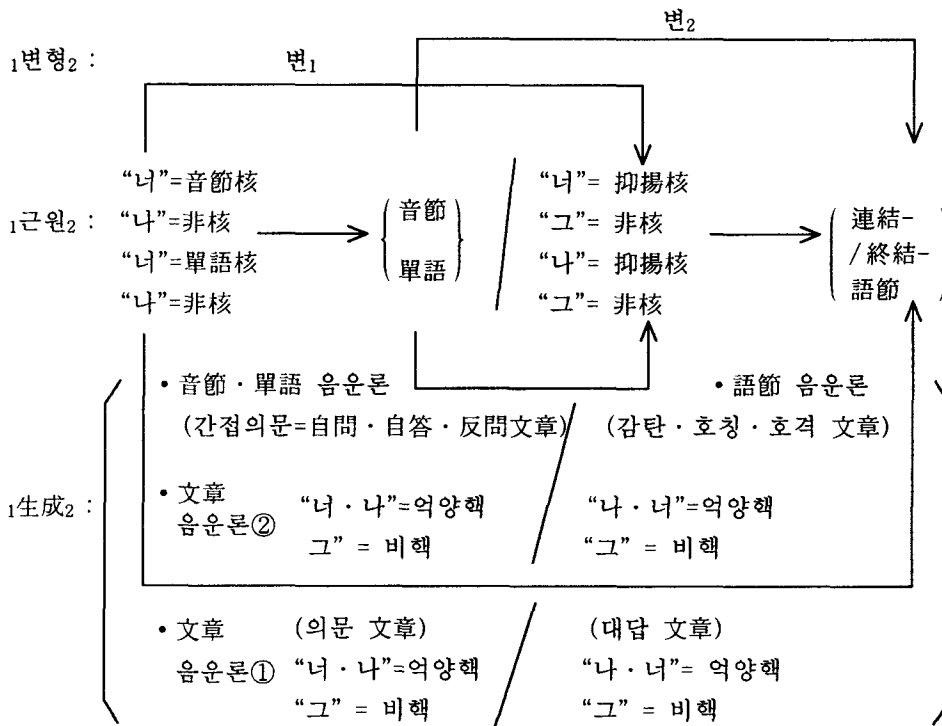


cf. <理論...> p. 480이하.

*주의 : *앞과 같은 *주의.

전통적/비근원적 音韻論 단계의 橫對角線적 言語표기 :

*주의 : 아래 표기에서 (괄호)안의 것은 指示내용, 괄호 밖의 것은 指示요소를 가리킴. 生成단계의 [괄호]도 넓은 의미의 “指示내용”임.
 이 비근원 단계에서는 괄호 안의 指示내용이 먼저순서=나=중심, 괄호 없는 指示요소는 나중순서=너=비중심=수단=기능표지가 된다.
 그럼에도 불구하고 (괄호)없는 “비중심=指示요소”를 먼저로, 괄호있는 “중심=指示내용”을 나중으로 아래에서와 같이 배치한 것은, 사실상 實物적·구체적·의미적 指示내용=나를 중심=테두리=먼저로 잡고, 역시 實物·구체·의미적 성격을 띤 指示요소 = “너”를 비중심=구성요소=나중 으로 잡고있으면서 前者(=指示내용=나)를 근원적 의미에서 指示요소(=“너”=형태)로, 後者(=指示요소=“너”)를 역시 근원적 의미에서의 被指示요소(=“나”=의미)로 오인/착각하고 그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 비근원적 관점의 특징을 나타내고 그것을 근원적 관점과 쉽게 비교하기 위해서이다. (*이 점에 대해서는 [理論言語學....]p. 254 이하 “位置言語學과 統辭論” 참조)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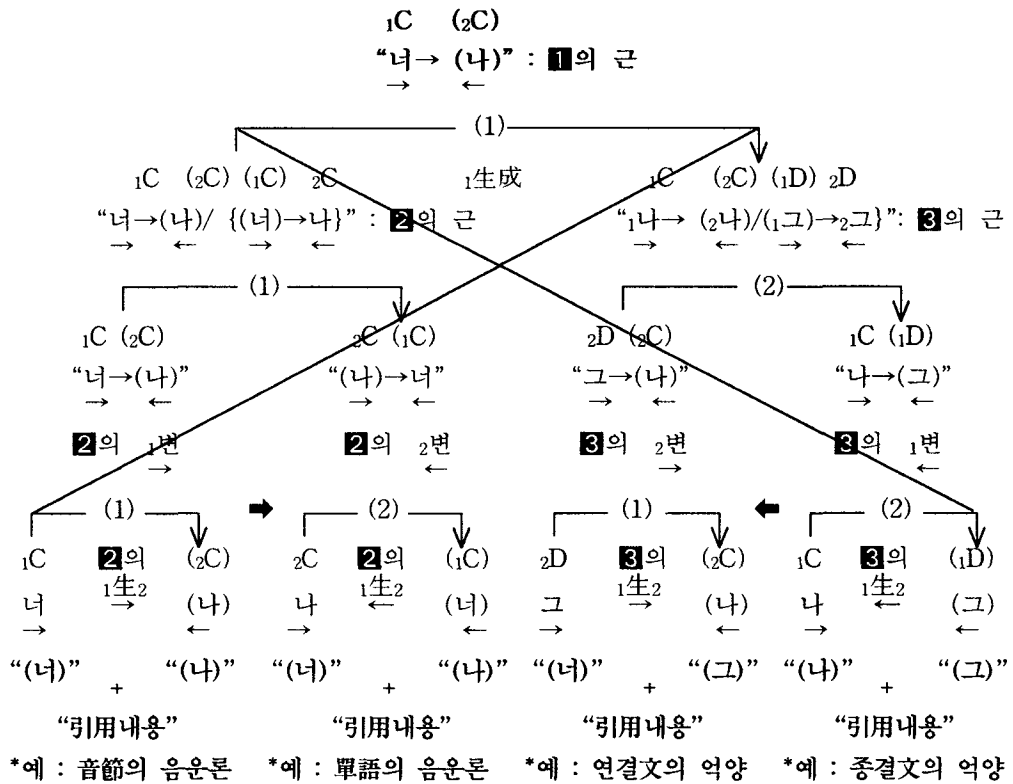
*주의 : *뒤 : “**1** → **5**”식 人稱표기 참조.

전통적/비근원적 音韻論 단계의 指示(=代名詞)적 人稱의 조직 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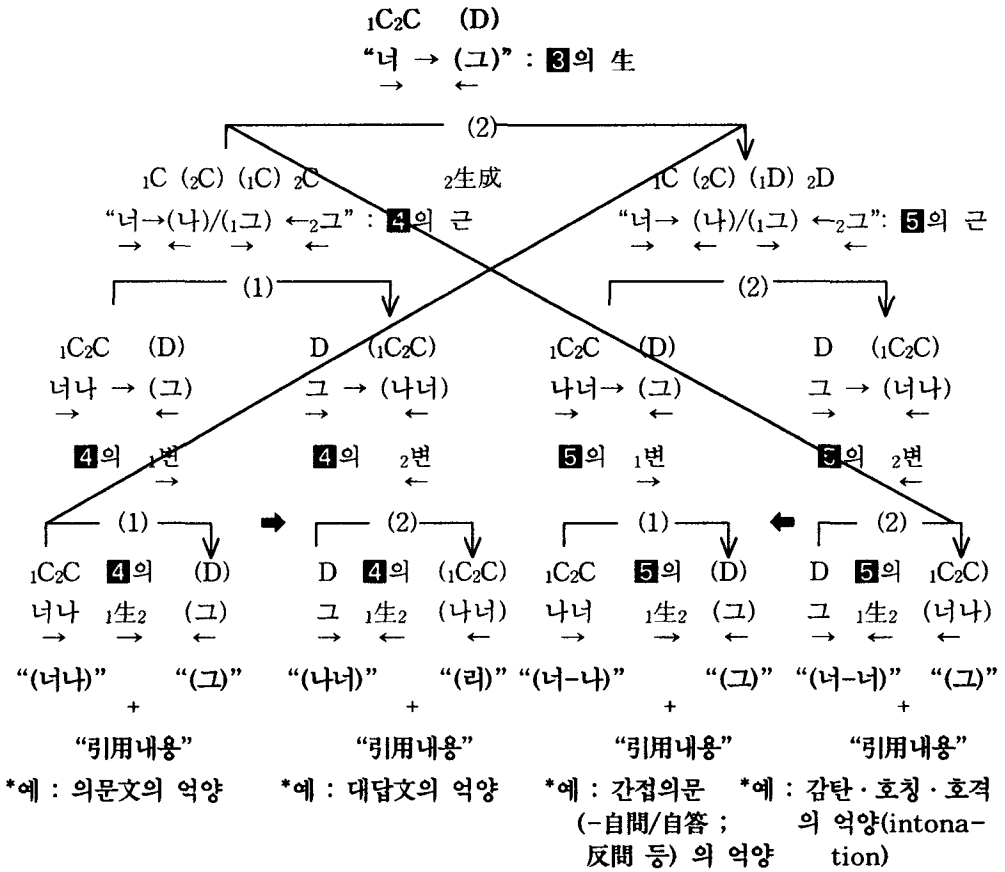
*주의 : 근원적 “指示((屈-/動-/代-)적 人稱의 조직)과는 달리 이 비근원적 조직은 屈折 人稱과 動詞人稱이 없이 代名詞 人稱만이 있는 “나” 中心의 代名詞적 人稱의 조직임에 *주의(이하 모두에 해당됨).

*주의 : *아래에서 (전통적/비근원적) “音韻論 → 品詞論 → 形態통사론 → 意味통사론”의 원래의 순서는 그와 逆의 순서이다(*앞 p. 26 : “結合적/비근원적 존재의 조직” 참조)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배열한 것은 “근원적 관점”과의 比較를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(*바로 뒤 p. 90 : *주의 項 참조).

〈屈인칭〉



<動인칭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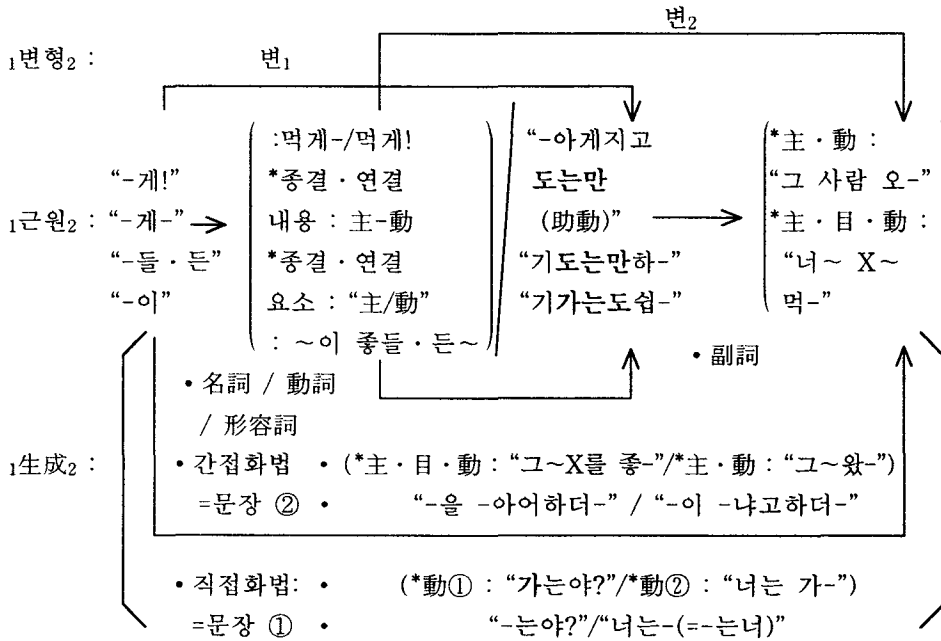
*주의 : “複合적 일반(인칭)음운론 단계” = “ ${}_1$ 生成/ ${}_2$ 生成 단계”의 “너” } 가 이루는
 “나” }
 “그” }

指示의 작은 각각(괄호)안에 들어가는 보충요소=complementizer가 되고, 그에 각각 대응하는 文章의 직접 분석의 요소들의 소리의 특징들이 中心요소가 된다.

*주의 : 기타 *주의는 *뒤 “전통적/비근원적 品詞論단계” 참조.

전통적/비근원적 品詞論단계의 橫對角線적 言語표기 :

*주의 : 아래 표기에서 (괄호) 안의 것은 “引用내용”이고, 괄호 밖의 것은 “引用표지”를 가리킴. 1生成단계의 [괄호]도 넓은 의미에서 “引用내용”임.
 그런데 이 “비근원단계”에서는 이 괄호 안의 引用내용이 중심=먼저순서=“나”, 괄호 밖의 引用표지는 보충적 요소(complementizer)=나중순서=“너”가 된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괄호없는 것을 먼저로, 있는 것을 나중에 배치한 것은



이 비근원 단계의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. 즉 사실상 實物·구체의미=“나”를 중심=먼저로 잡고 있으면서 그것을 형태=“너”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특징이 곧 그것이다. (*여기서 “나” = 引用내용/ “너” = 引用표지가 된다). 거꾸로 그 “형태(=너)”는 “의미(=나)”에서 誘導되는 “부차적 보충요소”라고 주장하는 것이 또한 그 특징이다. (*이점에 대해서는 [理論言語學...] p. 254이하 “位置言語學과 統辭論” 참조).

*주의 : *앞 근원적 “複合적 일반형태론(Ⅲ)단계”의 1변2는 이 비근원 단계의 비 분석성 때문에 “1근원”단계로 합쳐졌음에 주의.

*주의 : *뒤 : “1 → 5”식 人稱표기 참조.